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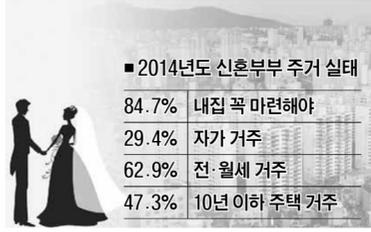
신혼부부 10쌍중 8쌍 “내 집 꼭 마련해야”

2014년 주거실태 패널조사

내집 마련 예상기간 평균 8년 9개월

63% 전·월세, 29% 내집서 거주

전세 거주 평균 전세금 1억1200만원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8쌍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4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 2677쌍을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 가운데 84.7%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15.3%였다.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79.1%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일반가구보다 더 큰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1~4분위)층과 중소득(5~8분위)층 신혼부부 가운데 각각 85.3%와 84.9%가 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득층(9~10분위)의 79.0%보다 비율이 높았다. 고소득층은 전·월세로 살더라도 중·저소득층에 비해 주거불안을 상대적으로 덜 느

끼고 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내 집 마련 의지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 비율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85.6%,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80.4%여서 자녀 유무에 따라 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신혼부부들이 예상하는 내 집 마련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8년 9개월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10년, 그 외 지역에 사는 신혼부부들은 7년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이 9년 6개월, 중소득층이 8년 1개월, 고소득층이 5년 9개월을 예상했다.

높은 내 집 마련 의지와 달리 신혼부부의 62.9%가 전·월세 등 남의 집을 빌려 살았다. 내 집이 있는 경우는 29.4%에 그쳐 일반가구(자가 53.6%, 임차 43.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집을 임차해 사는 신혼부부 가운데 77.5%는 전세로

살고 있었으며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200만원이었다. 보증부 월세의 비율은 21.9%였다.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평균 1억9800만원의 주택에 살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가 7800만원 정도 산 주택에 신혼부부들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47.3%가 10년 이하 주택에 거주해 일반 가구(26.2%)보다 새집 선호도가 더 높았다. 10년 초과 20년 이하 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38.0%, 20년 초과 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는 14.7%였다. 또 52.3%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74.2%)와 임대료 상승 걱정이 없다는 점(21.6%)을 꼽았다.

임주 의향이 없는 신혼부부들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29.7%), ‘작은 주택규모’(29.3%), ‘좋지 않은 주택 성능’(14.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택 위치를 결정할 때는 직장과 거리(47.6%), 주거 환경(26.6%), 부모 집과의 거리(17.7%) 등 순으로 고려했다. 특히 부모 집과 거리를 고려한다는 신혼부부의 43.3%는 처가와의 거리, 39.3%는 시댁과의 거리를 감안해 주택 위치를 결정했다.

주택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용자가 마련한 신혼부부가 35.5%로 가장 많았고 부부의 자금만으로 집을 산 경우가 21.8%, 부부 자금이 부모와 친인척들이 상속해준 자금을 더한 경우가 13.8%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시역 주요 아파트 평균시세 (2015년 5월 1일 기준)

(단위:㎡, 백만원)

구	지역	아파트명	전용면적	매매		등록폭	임대		등록폭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구내	계림	금호타운 1차	60	165	180	0	140	150	0
			85	185	200	0	170	185	0
		두산위브	85	235	260	0	200	220	0
			114	280	305	0	230	250	0
구외	산수	두암타운금호/대주	95	180	195	0	150	160	0
			135	240	255	0	180	200	0
	소태	모아미래도	72	160	175	0	125	145	0
			85	200	215	0	150	170	0
구내	동천	호반베르디움5차	85	290	330	0	230	260	0
			120	370	395	0	295	315	0
	쌍촌	시영	51	95	105	0	75	82	0
			60	103	113	0	90	100	0
구외	풍암	동부센트레빌	85	220	255	0	180	200	0
			115	250	290	0	200	220	0
	화정	라인동산	60	105	115	0	85	95	0
			85	155	170	0	120	130	0
구내	방림	모아2단지 2·3차	60	105	125	0	90	100	0
			84	130	145	0	110	120	0
	봉선	금호타운 1차	85	185	220	0	165	190	0
			126	250	295	0	225	265	0
구외	송하	삼익	60	95	105	0	80	95	0
			85	128	150	0	115	135	0
	양림	휴먼시아 1단지	76	220	250	0	190	210	0
			85	240	270	0	210	230	0
구내	주월	현대2차	60	89	105	0	75	88	0
			85	135	158	16	110	130	0
	진월	풍림	60	110	127	0	100	115	0
			85	160	185	0	140	160	0
구외	동림	주공 3단지	50	95	108	0	80	90	0
			60	115	130	0	95	105	0
	두암	주공1단지	42	60	70	0	50	59	0
			50	80	90	0	60	70	0
구내	본촌	현진에비빌	85	220	240	0	170	185	0
			112	265	290	0	215	230	0
	삼각	그린타운	60	110	130	0	85	100	0
			85	145	173	0	120	140	0
구외	신용	웅두주공	50	90	105	0	73	83	0
			60	115	130	0	95	105	0
	양산	호반리전시빌 II	38	70	80	0	45	50	0
			85	170	185	0	120	130	0
구내	연제	현대	85	120	140	0	100	110	0
			130	160	180	0	140	150	0
	운남	삼성	60	110	130	0	90	100	0
			85	135	158	0	110	125	0
구외	월곡	금호타운	74	115	133	0	95	106	0
			85	135	153	0	115	125	0
	장덕	현진에비빌 2단지	80	255	285	115	210	235	120
			85	300	335	110	240	270	110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광주·전남 주택소유자 절반 “건축비 지원 있으면 한옥에 살고 싶다”

광주·전남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건축비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절반 정도가 한옥 거주를 희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피데스하우징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전용면적 80㎡ 이상 주택 소유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의 한옥 건축비 무상 지원이 있을 경우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1%에 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 중 한옥 구입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가 최초에는 37%, 한옥의 건축비(3.3㎡당 800만원)를 공개한 뒤에는 10%로 줄었으나 지자체의 한옥건축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알려준 뒤에는 50%를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남도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85㎡ 이상의 한옥주택 건축시 건축비 3000만원을, 50㎡ 이상 건축시 2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4000만원까지 2%대의 장기 저리 융자도 제공하고 있다.

문경 피데스하우징 대표는 “한옥 구입을 원하는 사

람은 많지만 비싼 건축비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남도처럼 지자체의 한옥 건축비 지원이 한옥마을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옥 거주 희망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주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적인 자재로 만들기 때문에’가 19%, ‘마당·대청마루 등 개방적인 구조가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16% 순이다. 한옥 거주자 주택면적은 85~115㎡, 토지 면적은 400~500㎡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뉴스



광주·전남 관심 물건



◇영암군 소재 아파트
-소재지: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405-4
영암삼호한양파크빌1차 102동 1201호
-관리번호: 2014-12568-001
-면적: 대 52.89㎡ 지분, 건물 84.92㎡
-감정가격: 100,000,000원
-최저입찰가격: 100,000,000원
-입찰기간: 2015.06.08~06.10
-내용: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삼호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있다.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나지 등이 혼재한 주택지대다.

◇영암군 소재 기타주택·공동주택
-소재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29 산호빌리지 3층 301호
-관리번호: 2014-14830-009
-면적: 대 81.111㎡, 건물 57.04㎡
-감정가격: 47,000,000원
-최저입찰가격: 47,000,000원
-입찰기간: 2015.06.08~06.10
-내용: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용당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있다.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가능하고 현장입찰은 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부동산 메모 <4월 다섯째주>

수완동·계림동 매매가 올라 ... 광산구 전세가 대기수요 많아 연일 오름세

◇매매=광주는 광산구, 동구 일대 매매가가 올랐다. 광산구는 수완동 일대 매매가가 연일 오름세다. 평동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근로자 수요가 많은데다 학교, 편의시설 여건도 좋아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매물이 많지 않아 간혹 신규 매물이 나오면 호가가 올라서 거래된다. 동구는 계림동 일대 매매가가 상승했다.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 주변으로 상업지구가 형성

돼 있어 백화점, 대형 마트 이용이 편리해 매수자 선호도가 높다. 지역 내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아 매물량이 적다 보니 매도자들이 오른 호가에도 거래가 수월하다. 매매가는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2차 115㎡가 1000만원 오른 2억7500만~3억1500만원이고 동구 계림동 금호타운1차 105㎡가 1000만원 오른 2억500만~2억3000만원이다.

◇전세=광주는 광산구 일대 전세가 상승했

다.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로자 유입까지 겹치면서 대기하는 세입자 수요도 많다. 금리인하로 월세 물건은 늘고 있지만 전세 물건은 부족해 높은 호가에도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는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2차 115㎡가 2억2500만~2억4000만원, 코오롱하늘채 132㎡가 2억8000만~3억1000만원이다.

〈부동산써브 제공〉

부동산 경매! 특수 물건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 ✓ 1대1 실전 개인 전수
- ✓ 주 1회 3개월 교육
- ✓ 교육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등 2200만원
-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 자금 - 1억원 이상
- ✓ 기간 - 1년 정도
- ✓ 수익 - 연 20% 정도
- ✓ 방식 - 3대1 방식
- ✓ 보장 - 소유권 이전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1억원 이상
-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 ✓ 낙찰물건에 80~90% 정도
- ✓ 기간 - 상담 후 결정
- ✓ 이자 - 연 10~12% 확정

특수비법 전수하고 활동하고 계신분들!

- 건설회사 사장
- 제조업 사장
- 가정주부
- 전, 경찰서 서장
- 공인중개사
- 광주대학교 학생
- 전, 소방서 서장
- 경매학원 원장
- 채권회사 부장
- 명품회사 사장 등 다수 상담시 오픈합니다!
- 석재공장 사장
- 전, 은행 지점장
- 장례식장 사장
- 전, 도청 직원
- 기사자동차 직원
- 오회회장품 이사
- 아주커 치킨 사장
- 입시학원 원장
- 주유소 직원

부동산 경매 투자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상담예약 요망)